

나주, 오미크론 확산에 '잠시 멈춤' 동참 요청

변이 바이러스 전염력 강해...이번 달 48명 확진

강인규 시장 "백신접종 당부 방역 총력 다할 것"

나주시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준수와 타 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등 '잠시

멈춤 운동'의 참여를 요청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위태롭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이를 통해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641명

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2022년 새해 시작 후 2주 만에 14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48명으로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전파력이 빨라 지역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멈추지 못하면 그토록 바라던 일상은 더욱 멀어지고 생업에 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며 "설 명절까지 '잠시 멈춤'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세라도 선제 검사를 받고 KF94이상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길 바란다"며 "방역망이 회복될 때까지 타 지역 방문과 각종 행사, 사적 모임 등은 가급적 잠시 멈춰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한 생활방역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12만 시민이 우리 사회 안전을 지키는 방역 사령관이 돼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담양의국어체험센터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담양교육지원청은 2021학년도 담양의국어체험센터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17일부터 21일까지 담양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담양의국어체험센터에서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담양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글로벌 문화 이해 함양을 위해 운영된다.

담양의국어체험센터는 센터 운영 강사들의 지속적인 영어 교육 연구 및 타 지역 외국어체험센터와의 교류를 통해 영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캠프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영어 캠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담양=정일남 기자



담양교육지원청이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관내 초등학생 43명을 대상으로 담양의국어체험센터에서 진행한다.

/담양교육지원청 제공

장성, 군민에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

오늘부터 지급...지난해보다 2배 늘어

장성군이 17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 20만 원을 모든 군민에게 지급한다. 소요 예산 90억 원은 지난해 말 선제적인 본예산 편성을 통해 전액 군비로 확보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와 민생을 속히 안정시키겠다는 군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장성군에 주민등록 된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결혼 이민자나 영주 자격 취득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해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해당 지역 행정부

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 인구가 밀집돼 있는 장성읍은 주민 편의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감안해 첫 주 평일에는 군민회관에서, 주말에는 각 마을회관 현장에서 접수하고, 2주 차인 24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은 신청 즉시 지급 자격을 확인하고, 1인당 20만 원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배부한다. 지난해 지급했던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보다 2배 인상된 금액으로, 경제 회복은 물론 빠른 일상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은 특히 높다. 장성읍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인관 씨는 "지난해 설 명절 이전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액수가 2배로 늘어, 그만큼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농가의 반응도 호평 일색이다. 진원면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 이장호 씨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이 많은데, 이번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이나 병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군 공무원이나 마을이

장이 가정을 방문해 지원금 신청 절차를 돕는다.

장성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북일면의 유동원 면장은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올 것을 걱정하는 주민께 '직접 찾아뵙고 전달해 드린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며, 일선 직원들도 뿌듯해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성군은 모든 군민이 따스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읍·면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지원금을 배부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민이 겪는 고통이 크다"면서 "모든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행정력을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흥군-원광대 상호교류 MOU

산하 병원 진료비 감면 군 시설 이용료 할인 등

장흥군과 원광대가 최근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맺고, 장흥군민과 원광대 교직원에게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원광대 본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정중순 장흥군수와 박맹수 원광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장흥군민의 원광대 산하 병원 진료비 감면과, 원광대학교 산하 교직원

의 장흥군 시설 이용료 할인 등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장흥군민은 원광대 부속 병원 이용 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진료비는 법정 비급여의 15%(약제비, 재료비 제외)를, 원광대병원 종합검진 패키지 이용한 건강검진 때 본인 부담금의 15%를 할인받는다.

원광대 산하 교직원은 장흥군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할인 받게 됐다. 또한 장흥군은 정남진물, 특산품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지역 특산품

을 품목에 따라 5-10%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흥=이국현 기자



나주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학 대토론회가 최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나주교육지원청 제공

나주교육 현안 해결 대토론회 성료

나주교육지원청과 나주교육참여위원회가 주관한 나주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학 대토론회가 최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는 나주교육의 현안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민·마을공동체활동가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 작은학교·과밀학교

학력 제고방안,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이해 및 연계방안, 민·관·학 거버넌스의 필요성 및 방향성 등을 선정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49명의 참여자가 7개 모둠으로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나주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나주=이재순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흥 장평면, 새학기 준비지원금 전달

장흥군 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안병진, 오영복)는 최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평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생에게 새학기 준비 지원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사업은 아동특화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감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장평면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9명 등 총 10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했다. 안병진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아이들이 희망찬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국현 기자



나주 반남면 청년회, 겨울철 김장 나눔

나주시 반남면은 최근 지역 단체와의 복지특화사업을 통해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을 실시했다고 16 일 밝혔다.

반남면 청년회(회장 송행선)와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석호)는 겨울철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갖고 480kg 분량의 김치와 동치미를 관내 경로당 29개소에 전달했다.

송행선 청년회장은 "청년, 주민들의 사랑이 담긴 김치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화 반남면장은 "김장 나눔을 통해 경로효친에 앞장서준 청년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성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충권 기자



담양군공예인협회,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재)담양장학회는 최근 (사)담양군공예인협회(이사장 허무)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담양군공예인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지역인재 사랑을 이어오며 누적 65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허무 이사장은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해 꿈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8년 설립된 (사)담양군공예인협회는 다양한 분야의 공예인 50여 명이 모여 공예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7년 개관한 담양군공예센터의 위탁 운영을 맡아 각종 공예품 전시와 판매, 다양한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담양=정일남 기자